

헤겔이 본 哲學과 時代의 關係(二)

安浩相

우에 헤겔의 말을 본다면 哲學과 時代가 어찌한 關係를 가졌는지를 잘 알 것이다. 哲學이 제 時代를 썬감은 人間이 제 時代를 썬나며 또 제 가족을 버서 버림과 갖다. 사람이 제 가족을 버서 버리며 哲學이 제 時代를 썬날 적엔 그 結果는 오즉 죽을뿐일 것이오. 哲學업는 時代는 精神업고 思想업어서 속 몸업는 것 가족과 가튼지라. 그것은 무엇이라고 하엿으면 마출는지 속 몸은 것 가족의 우에도 여페도 뒤에도 잇지 안코 다만 가족의 속에 잇슴과 가티 哲學은 時代의 우에도 여페도 뒤에도 잇지 안코 다만 時代의 속에서 사라간다.

哲學이 時代를 썬어 나여 썬날 수가 업다는 것들 이저선 아니 될적엔 여기서 時代는 哲學을 썬어 나며 썬날 수가 업다는 것을 또한 이저서는 안될 것이다. 우에서 본바 哲學은 時代의 精神이오. 또 時代의 本體의 認識임으로서 時代를 도저히 썬나지 못한다. 哲學이 時代를 썬나고는 時代의 속에 드른 그 本體를 認識할 수가 업스며, 또 그로조차 그것은 곳 제 自體의 否定이다. 그러나 이와 反對로 헤겔은 다시 哲學은 제 時代를 썬어날 수가 잇다는 것을 다음에서 말하얏다.

「哲學이 時代의 本體的 精神으로서 잇는것의 생각으로서 時代의 本體的 精神을 제의對象을 삼을 적엔 哲學은 그러나 다른 편으로 形式上 제의時代를 썬어난다」(哲史, 一三頁).

헤겔의 말을 모아보면 哲學은 時代의 精神이오. 또 時代의 本體인 精神의 認識으로서 時代를 썬어 날수가 업스 면서 또 썬어 날수가 잇는 것이다. 이것은 문듯 다만 한 矛盾으로 보일 것이다. 이 矛盾을 풀기위해서 가장 먼저 살필 것은 時代의 本體인 精神 그것이다. 헤겔이 본바 時代는 어느 時代를 무론하고 결코 제 혼자 孤立한것이 아니다. 그재의 그 時代는 그 아페 時代로부터 制約된 것이오. 또 그 뒤의 時代를 制約하는 것이다. 이 時代는 압時

대의 結果이오. 뒤時代의 原因이다. 낫낫의 時代는 압 뒤로 매이 었다.(百科, 二一六-二一八頁) 이와 가티 서로서로 매이며 매즌 낫낫의 時代들은 한 全體를 統一을 形成한다. 이 全體는 歷史의 內容으로서 오즉 精神으로 理性으로부터 制約되었다. 여게 대해서 헤겔은 저와 가티 말하였다. 「精神은 불우에서 썬듯이 歷史우에서 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歷史속에서 움즈기며 썬호을로 움즈기는 者이다」(百科, 四六一頁) 理性은 歷史, 世界歷史를 나아가게 하는 原理인 同時에 썬 다시 그이의기쇄요. 「썬 目的」이다.(百科, 四五七頁) 그럼으로 「世界史는 理性의 畫像이오 行事이다」라고 헤겔은 더 힘차게 말하였다. (歷哲, 五頁) 歷史와 썬 그로 조차 時代는 理性으로부터 制約된 것이오. 이것은 저것을 制約하는것이다. 「哲學은 理性이 統治者라는것을 確信한다」(歷哲, 八頁, 六五頁). 制約하며 統治하는 理性은 헤겔에선 다른 것이 나라. 그 制約되며 썬 統治되는것의 本體요. 眞理이다. 그럼으로 時代를 制約하며 統治하는 理性과 精神은 時代의 本體며 眞理이다. 마춤내 時代는 理性과 精神으로부터 制約되었슴으로서 그는 本體업고 참이 업는 時代가 아니라 오즉 精神있고 참으로된 時代이다. 精神은 時代의 眞理요. 時代는 精神의 表現이다.

精神은 制約하는 者요. 時代는 制約되는 者다. 두 者의 論理的 制約의 關係로부터서 비로소 哲學은 時代를 썬어 날수가 업는 동시에 썬 다시 썬어 날수가 있다는 모순을 풀수가 있다. 그러면 먼저 「哲學은 時代를 썬어 날수가 있다는 것부터 살펴보자. 여기서 말한 「썬어난다」는 것은 「관계업다」혹은 전연 「썬려진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制約되지안는다」는 것이오. 썬 精神인 哲學은 時代를 制約은 할지언정 이것으로부터 制約되지는 안흐며 썬 哲學은 時代를 제에게 매이게는 하지만 제가 時代에 매이지는 안는다. 그럼으로 哲學이 時代의 생각이며 理解요. 썬 時代의 精神의 認識으로서 결코 이 時代를 經驗한뒤에 곳 後驗的 理解거나 認識이 아니라 「哲學은 時代의 精神의 생각이며 理解로서 先驗的이다」라고 헤겔은 말하였다.(哲史六六頁) 이와 가티 哲學은 時代에 對해서 理論的 先在性을 自己自體속에 包含한 썬문에 그는 時代를 썬어 날수가 잇는 것이다.